

상대적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변화추이*

김현철** · 황수진*** · 박혜랑****

초 록

1960년대 이후 경제가 고속성장하면서 한국사회의 절대빈곤은 완화되었지만 상대적 빈곤 및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투자로 이해될 수 있는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의 차이가 소득계층간 교육기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가구, 일반가구,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소득수준과 사교육비 지출규모,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규모, 일반가구와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전체 소득 중 사교육비 비중의 변화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모든 패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월평균 사교육비가 대체로 증가하였다.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는 전체가구의 3/4 가량 이었는데 모든 패널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일반가구 대비 소득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높아졌다.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상대적 빈곤층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중1, 고1의 중고등학교 진학시기와 고3에서는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일반가구 대비 사교육 지출 비율이 특별히 높아서 이들 시기에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대적 빈곤층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이에 따른 세대간 경제계급 이동성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교육비 규모의 축소만이 아니라 낮은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가교육활동(extra-curricular activity)의 설계와 제공 등에 의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또한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교육수요가 많은 시기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상대적 빈곤층, 사교육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8A02081889).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phr39@hanmail.net

I. 서 론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이유는 사교육이 단기적으로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진학이나 취업에까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위주 정책으로 경제가 고속성장하면서 절대빈곤이 빠르게 완화되었지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지역간 또는 사회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상대적 빈곤 및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정은희, 이주미, 2015), 상대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간 또는 사회계층간 격차가 커지는 현상은 교육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득 수준 차이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의 심화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높은 교육비 지출로 인해서 빈곤한 생애가 지속되는 에듀푸어(edu-poor)¹⁾가 급속하게 증가(백일우, 이병식, 2015)하고 있는데 사교육은 현재의 가계경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에듀푸어가 미래에도 여전히 빈곤한 가구로 남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유경준, 김대일, 2003). 최근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소위 강남3구로 대표되는 고소득자 거주지역 출신의 서울대 입학생수가 증가하였는데(조선일보, 2016.7.12) 이는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이 감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대로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높은 사교육비와 이에 따른 교육기회의 격차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은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그 자체가 교육투자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간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비용의 차이로 대표되는 교육기회 격차는 그 규모와 격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김민희, 2017; 김혜자, 2013; 조영재, 2013; 최은철, 이주석, 2017). 가구당 소득분위별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에는 1분위가 35,875원, 5분위가 246,789원으로 5분위가 1분위의 약 6.9배, 2011년에는 1분위가 36,642원, 5분위가 300,772원으로 5분위가 1분위의 약 8.2배, 2016년에는 1분위가 37,132원, 5분위가 312,466원으로 5분위가 1분위의

1) 도를 넘어선 교육비 지출로 인해 생활이 궁핍해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에듀케이션 푸어(Education Poor)’의 준말이다. 에듀푸어는 교육을 제외한 보건, 교통, 통신, 의류 등 다른 의식주 부문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소비를 하는 특징이 있다(김환표, 2013).

약 8.4배 정도를 지출하였다(이철원 외, 2018). 사교육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재원의 낭비나 교육적 부작용 등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사교육의 폐해와 더불어서 사교육은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능력 차이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과 대학진학 성과를 좌우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이의 변화양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행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실태 연구들은 여러 기관에서 수집된 서로 다른 통계자료들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지출격차를 비교하고 있다. 우선, 류정순과 이순형(1998), 이성립(2002), 양정선과 김순미(2003) 등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류정순과 이순형(1998)은 1982년부터 1996년까지 도시근로자 학부모 가계의 사교육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을 4개로 구분하고 1/4분위와 4/4분위의 소비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비율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이성립(2002)은 1990, 1996, 1998, 2000년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1분위부터 3분위까지를 하층, 4분위부터 7분위까지를 중층, 8분위부터 10분위까지를 상층으로 구분하여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지출격차를 비교하였다. 또, 양정선과 김순미(2003)은 통계청 2001년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10분위 자료를 각 분위별로 비교하였다.

최은철과 이주석(2017)은 2015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5개 소득분위로 구분하고 5분위의 사교육비를 1, 2분위와 비교하였고, 양정호(2006)은 2001년부터 2004까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서 1분위와 5분위의 지출규모를 비교하였다. 김경근(2005)와 조영재(2013)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김경근(2005)은 한국교육고용패널의 1차년도 자료에서 소득수준을 200만원 이하, 201-350만원, 351-500만원, 500만원 초과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사교육비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조영재(2013)은 1차부터 7차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3학년과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각을 중위소득 50% 미만의 하위소득 집단, 중위소득 51%부터 100%의 중하위소득 집단, 101%부터 150%의 중상위소득 집단, 150% 초과 상위소득 집단 등의 4개 소득집단으로 구분하고 소득계층간 사교육비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불평등도가 1982년부터 1996년 사이에 대체로

감소하고,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격차가 점차 심화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연구에 사용된 통계자료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조사에서 제공하는 소득구분 기준을 사용해서 소득집단간 비교를 위한 계층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선행연구는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소득계층의 구분 방식, 구분된 소득계층에서 상위소득계층과 하위소득계층의 정의에 거의 공통점이 없는 상태여서 이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지출격차의 변화양상이나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상대적 빈곤층’을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집단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이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전체 가구 또는 상대적 빈곤층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규모, 이의 시계열적 변화추이와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자녀의 학년에 따라 소득대비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여 시기별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종단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의 자녀 학년별 사교육비 지출양상은 보고된 바 없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층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교육비의 개념과 실태

김영철(1997)은 사교육을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학교외 교육, 최상근 외(2004)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학습지, 인터넷 과외 등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 김미숙, 강영혜, 박소영, 황여정과 이희숙(2006)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외에 사적으로 받는 보충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은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통계청, 2008).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을 크게 가구요인, 자녀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구요인으로는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부모의 경제적 지위, 가구내 자녀수 그리고 거주지역, 자녀요인으로는 자녀의 성별, 학급형태, 학업성적, 환경적 요인으로는 교원관련 변인(교사에 대한 개별 학생의 평가 등), 교내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방과후 프로그램 등)의 존재 유무 등이 보고(김준엽, 2017; 김현진, 박균달, 2011; 김화경, 2017; 김희삼, 2009; 박현정, 이준호, 2009)되었다. 선행연구들(양정호, 2006; 윤철경, 1990; 이성립, 2006; 조영재, 2013; 최은철, 이주석, 2017)에 의하면 사교육비 지출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구소득이었으며,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한 사교육비 지출이 교육의 격차와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박성호, 문성빈, 황정원, 김성식과 황지원(2015)는 가계동향조사 데이터(2007-2014)를 활용하여 사교육비 추이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는 소득구간 2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학원교육비²⁾가 2007년 154,848원(소득대비 비중11%), 2011년 161,138원(소득대비 비중 11.7%), 2014년 140,772원(10.3%)인 반면 소득구간 7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학생학원 교육비는 2007년 679,848원(소득대비 비중 7.6%), 2011년 692,334원(소득대비 비중 7.8%), 2014년 698,439원(소득대비 비중 7.6%)으로 소득구간별 격차가 2007년에 525,000원, 2011년 531,196원, 2014년 557,667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 상대적 빈곤층의 정의와 우리나라 현황

빈곤은 객관적으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자원의 부족, 열악한 생활 상태로 소득의 부족이나 경제적 결핍을 의미한다(이현주, 정은희, 이병희, 주영선, 2012).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소득은 모든 차별이나 격차의 근원이 된다(Sandel, 2012).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의 비교는 교육정책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비교의 기준이 되는 빈곤의 정의에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김수현, 이현주, 손병돈, 2009).

절대적 빈곤이란 가구의 총소득이 육체적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2) 사교육비 관련 지출에서 성인을 포함하지 않는 분석을 위하여 학생학원교육비를 사용하였다. 학생학원교육비에는 입시 및 보습, 음악학원, 미술학원, 운동학원, 직업준비학원, 방문학습지, 체험교육, 기타학원교육비, 개인과외비를 포함하는 지출을 의미한다(박성호 외, 2015).

생필품을 획득하기에 불충분한 상태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선 이하를 의미한다(김수현 외, 2009). 이에 비해 상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설정되는데, OECD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는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로, EU는 중위소득의 60%, 영국은 평균소득의 50%, 프랑스는 중위소득의 50%, 일본은 평균 소비지출의 68%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우석진, 2011).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 빈곤에 대한 여러 정의 중에서 OECD와 우리나라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위소득의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사용하고, 상대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적은 계층을 상대적 빈곤층으로 정의한다. 다음 표 1에는 이 기준에 의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제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대략 14% 내외이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2016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에서 경상소득은 시장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을 합한 것이며, 가처분소득은 총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을 제한 것이다. 공적이전소득은 연금과 정부지원금의 합이 된다.

표 1
상대적 빈곤율

구분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12	14.3	13.7
2013	14.1	13.4
2014	13.8	13.3
2015	13.6	12.8
2016	14.5	13.8

출처: 여우진, 전지현(2017)

3. 상대적 빈곤층의 교육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상대적 빈곤층은 일을 해도 여전히 가난한 근로빈곤층이라 불린다(박보영, 2010). 만약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무능력, 게으름 등의 개인적 속성으로 지목한다면 복지정책은 개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기초하여 대응하게 된다. 이는 빈곤층이 실제로 저학력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니지만 절대적 빈곤층과 달리 일을 해도 여전히 가난한 상대적 빈곤층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력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김윤태, 서재욱, 2013). 이때 상대적 빈곤층이 소득을 어디에 지출하고 있는지가 빈곤의 원인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본과 학업성취간의 높은 관련성(Bourdieu, 1986)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등의 자녀교육을 위한 기회를 좀 더 많이 확보하며, 이러한 양상은 자녀의 학업성취 및 진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김준엽, 2017; 김현진, 박균달, 2008; 김화경, 2017; 채창균, 이재경, 2009). 이러한 관점에서 사교육비 지출은 교육투자로 이해될 수 있다. 유경준과 김대일(2003) 등에서는 사교육비를 교육투자로 이해하고 이를 교육기회 격차로 해석하였으며, 소득과 대학진학과 관계에 대해 연구한 구인회와 김정은(2015)는 고교시절 가구소득은 자녀의 대학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고교시절의 가구소득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대학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에는 전체 가구와 저소득 가구, 일반 가구의 소비유형이 조사되고 있는데 다음 표 2에는 이 조사에서의 소득계층별 생활비 지출항목 구성비율이 제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빈곤층(6.17%), 중산층(6.78%), 상층(7.93%)의 사교육비 지출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고 사교육비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백학영, 안서연, 2012). 이 조사연구는 중위소득 50% 미만을 빈곤층, 50%이상 150%미만을 중산층, 150%이상을 상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2

소득계층별 지출항목 구성비율

항목	전체(%)		빈곤층(%)		중산층(%)		상층(%)		
	3차	4차	3차	4차	3차	4차	3차	4차	
식료품비	22.76	22.92	29.37	30.02	24.42	24.24	18.43	18.88	
주거비	3.29	3.31	5.23	4.88	3.62	3.68	2.30	2.29	
광열·수도비	4.37	4.38	7.39	6.89	4.77	4.70	3.01	3.20	
교통·통신비	13.87	13.77	12.67	12.58	14.45	14.20	13.71	13.31	
교육비	사교육비	7.11	7.08	6.17	5.61	6.78	6.81	7.93	7.89
	공교육비	5.87	5.43	7.35	6.17	6.20	5.75	4.97	4.71
의류·신발비	2.77	2.92	2.27	2.76	2.56	2.71	3.27	3.30	
가구·가사용품비	3.24	3.45	3.09	3.36	3.39	3.74	3.00	2.94	
보건·의료	3.32	3.47	3.86	3.95	3.33	3.57	3.19	3.19	
기타소비지출	33.40	33.27	22.6	23.78	30.48	30.60	40.19	40.2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백학영, 안서연(2012) 재구성

다음 표 3에는 같은 조사의 2017년 자료에 의한 소득계층별 가구의 아동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제시되었는데 이 표에 의하면 저소득 가구는 월평균 14만 3천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여 전체 가구(27만 9천원)나 일반 가구(29만원)보다 낮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다(김태완 외, 2017).

표 3

소득계층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현황

(단위: 만원)

구분	전체 가구	저소득 가구	일반가구
중위	21.50	10.00	23.00
평균	27.90	14.30	29.00
표준오차	0.73	1.59	0.77

출처: 2017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김태완 외, 2017)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각 패널별로 전체 가구, 상대적 빈곤층가구, 상대적 빈곤층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변화추이가 분석되었다. 전체 가구, 상대적 빈곤층가구, 일반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규모 변화추이는

- (1) 상대적 빈곤층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수준 변화추이,
- (2) 상대적 빈곤층가구와 일반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규모 변화추이,
- (3)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지출비율 변화추이,
- (4) 상대적 빈곤층가구와 일반가구의 전체 소득 중 사교육비 비중 변화추이

등의 네 가지로 검토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사교육비에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수업, 인터넷, 방과후학교, 복지기관, 사설문화센터 등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매년 추적조사에 의해서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등 3개 패널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연구의 사교육비 분석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가 선택된 이유는 첫째, 이 자료가 7차의 장기 종단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있고, 둘째, 이 자료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등 세 개 학년 코호트에 대한 별개의 패널을 구축하고 있어서 종단적으로 조사되는 사교육비 규모에 대한 학년변화의 효과를 조사시점의

경제여건이나 입시제도 변화, 사회분위기 등의 효과와 분리할 수 있으며, 셋째, 이 자료는 제7차 조사시점에서의 원표본 유지율이 세 개 패널 평균 82.9%(5,862명/7,071명)로 사교육비 조사항목이 포함된 국내의 다른 종단조사들보다 표본이탈률(sample attrition rate)이 특별히 낮기 때문이었다. 다음 표 4에는 세 개 패널의 조사시기별 학년 정보가 제시되었다.

표 4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의 종단조사 모형

	1차 (2010)	2차 (2011)	3차 (2012)	4차 (2013)	5차 (2014)	6차 (2015)	7차 (2016)
초1패널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초4패널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중1패널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대1

이 연구에서는 표본이탈에 의한 조사시기별 표본의 이질성이 사교육비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부터 7차까지의 모든 조사에서 소득에 대해 응답한 표본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구구성원에 아동과 청소년만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가정의 소득과 사교육비 지출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표본이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중1패널의 제7차 조사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다음 표 5에는 각 패널별 총 표본수와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가 제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각 패널별로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는 대략 1,600명 내외였으며, 이는 패널별로 전체 수집 표본의 65-70%에 해당한다.

표 5

패널별 표본 수

	제1차 조사시기 표본수(a)	분석된 표본수(b)	분석표본 비율($=\frac{b}{a} \times 100$)
초1패널	2,342	1,658	70.79
초4패널	2,378	1,532	64.42
중1패널	2,351	1,614	68.65

사교육비는 공교육 이외에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지출하는 교육비용으로 정의되나 (김영철, 양승실, 김영화, 이주호, 2001; 도승이, 2007; 윤정일, 1997) 지금까지 여러 조사연구(김미숙, 강영혜, 박소영, 황여정, 이희숙, 2006; 김홍주, 한유경, 김현철, 1998; 최상근 외, 2004)에서는 사교육비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조사되고 보고되어 왔다. 국가승인통계로 작성되고 있는 통계청의 사교육비는 방과후교육비와 EBS 교육비를 사교육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조사하는 반면에, 이 연구에서 분석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은 방과후교육비와 인터넷 교육비로 통합된 EBS 교육비를 사교육비에 포함하여 조사하는 차이가 있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각 패널별, 각 조사시기별로

- (1) 소득의 중위수를 확인하고
- (2) 이로부터 중위소득의 50% 수준인 상대적 빈곤선을 산출하며
- (3) 전체 가구와 상대적 빈곤선 이하소득 가구, 상대적 빈곤선 이상소득 가구 각각의 평균 소득과 평균 사교육비를 산출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재산 및 임대소득과 연금, 각종 보조금, 개인적으로 받은 돈 등을 합하고 세금을 제한 금액을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고, 사교육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논술, 한자, 음악, 미술, 체육 기타 등 11개 과목별로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수업(학습지 포함), 인터넷(통신), 방과후학교, 복지기관, 사설문화센터, 기타 등 9개 유형 사교육별로 각각 참여시간과 지난 일 년 동안의 교재비를 포함한 월평균 사교육비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조사된 일 년간 가구총소득 자료로부터 총소득의 중위수를 확인하고, 다시 이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상대적 빈곤선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상

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전체 조사가구를 상대적 빈곤층가구와 일반가구로 분류하여 연도별 전체 가구와 각 집단별 사교육비 평균을 산출 비교하였다. 통계청에서는 연도별로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으나 자녀의 학교급별 중위소득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자녀의 재학 학교급에 따라 부모의 연령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중위소득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학교급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로부터 학교급별 중위소득과 상대적 빈곤선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증감을 차이나 집단간 사교육비 지출비용 차이를 비교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은 각 조사시기의 소득과 사교육비 자료가 직접 분석되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각 조사시기별로 표본의 횡단가중치와 종단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표본탈락의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7차의 조사에 모두 응답한 표본들(전체 표본의 65-70%)만 분석되었기 때문에 각 조사차수별로 무응답한 표본을 고려하여 산출된 조사자료 제공 가중치는 이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에 대한 가중치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의 산출과 각 집단별 소득평균, 사교육비 평균의 산출에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자료의 분석에는 통계패키지 SAS 9.4가 활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상대적 빈곤선

다음 표 6에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로부터 산출한 조사시기별 패널별 상대적 빈곤선이 제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상대적 빈곤선은 조사시기별 패널별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였으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세 개 패널에서 모두 상대적 빈곤선이 일관성 있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대적 빈곤선의 일관성 있는 상승은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표본의 소득 증가는 학부모의 연령증가와 물가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초1패널의 상대적 빈곤선이 초4패널이나 중1패널보다 약간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상대적 빈곤선은 모든 조사시기에서 세 개 패널이 대체로 유사하였다.

표 6
조사시기별 패널별 상대적 빈곤선

(단위: 만원)

	초1패널	초4패널	중1패널
1차 조사	2,000	2,000	2,000
2차 조사	2,000	2,000	2,000
3차 조사	2,250	2,100	2,150
4차 조사	2,250	2,150	2,250
5차 조사	2,300	2,250	2,250
6차 조사	2,500	2,275	2,250
7차 조사	2,500	2,500	-

2. 패널별 소득집단별 평균소득

다음 표 7에는 전체 가구와 상대적 빈곤가구, 일반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제시되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는 소득이 연간 소득으로 조사되었으나 표에는 이

를 월평균으로 환산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1차에서 7차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전체 가구, 상대적 빈곤층가구, 일반가구 각각의 월평균 소득은 대체로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405.06만원)와 상대적 빈곤층가구(143.37만원)의 경우에는 초1패널의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고, 중1패널(각각 390.21만원, 126.68만원)의 소득이 가장 낮았으나,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초1패널(436.20만원)의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고, 초4패널(423.97만원)의 소득이 가장 낮았다. 대체로 초1패널의 소득수준이 초4패널이나 중1패널보다 높지만 패널간 소득차이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였다.

표 7

소득집단별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

	초1패널			초4패널			중1패널		
	전체	상대적 빈곤층	일반	전체	상대적 빈곤층	일반	전체	상대적 빈곤층	일반
1차 조사	353.56	127.40	393.34	357.81	127.45	405.11	361.86	118.16	424.97
2차 조사	377.31	131.64	413.71	380.02	129.47	412.12	381.06	126.42	416.46
3차 조사	400.29	140.51	429.97	387.71	126.87	416.86	396.02	126.76	432.16
4차 조사	410.03	139.47	436.94	395.81	131.55	425.55	397.64	131.19	435.98
5차 조사	415.48	140.54	441.83	392.04	130.91	421.44	398.14	129.06	434.69
6차 조사	431.49	163.34	462.73	405.96	129.01	432.51	406.55	128.48	440.37
7차 조사	447.23	163.21	474.87	418.63	153.20	454.19	-	-	-
평균	405.06	143.73	436.20	391.14	132.64	423.97	390.21	126.68	430.77

3. 패널별 소득집단별 월평균 사교육비

다음 표 8에는 패널별 소득집단별 월평균 사교육비가 제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같은 조사시기에 중1패널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초4패널이 많았으며, 초1패널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작았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25만원-30만원, 초등학교 고학년은 30만원-35만원, 중학생은 35만

원-4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45만원이었다.

이 표에 의하면 모든 패널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상대적 빈곤층가구는 전체 평균보다 사교육비 규모가 대략 10-15만원쯤 적고(61.03%-63.36%), 일반가구는 전체 평균보다 대략 1-2만원쯤 많았다(103.30%-103.69%).

표 8

패널별 소득집단별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초1패널			초4패널			중1패널		
	전체	상대적 빈곤층	일반	전체	상대적 빈곤층	일반	전체	상대적 빈곤층	일반
1차 조사	24.62	16.32	26.01	29.11	17.18	31.31	34.10	21.21	36.56
2차 조사	28.60	18.85	29.96	29.59	16.76	30.96	33.84	19.41	35.17
3차 조사	30.28	20.72	31.26	30.10	17.85	31.20	34.81	17.95	36.41
4차 조사	30.10	18.50	30.98	35.06	23.33	35.90	40.98	24.05	42.10
5차 조사	32.36	18.47	33.38	36.68	23.72	37.70	43.28	17.02	44.98
6차 조사	33.89	19.98	35.29	39.49	27.35	40.19	48.71	52.10	48.59
7차 조사	38.06	25.03	39.07	43.94	33.46	44.71	-	-	-
평균	31.13	19.70	32.28	34.85	22.81	36.00	39.29	25.29	40.64

한편 표 9에는 표 8로부터 산출한 조사시기별로 소득집단별 월평균 사교육비 증감율이 제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초1패널은 사교육비가 2차 조사시기에 상대적 빈곤층가구와 일반가구에서 모두 크게 상승하였으며, 4차 조사시기에는 모두 감소하였으나, 초4패널과 중1패널은 4차 조사시기에 아주 크게 증가하였다. 초4패널과 중1패널의 4차 조사시기는 각각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여 각 학교급의 진학/진급 시기에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층에서는 중1패널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6차 조사시기에 사교육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학년별(조사 시기별) 사교육비 증감은 일반가구와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상대적 빈곤층가구에서는 일반가구보다 훨씬 커다란 진폭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 빈곤층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투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사교육비를 집중적으로 지출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9

조사시기별 사교육비 증감율

(단위: %)

	초1패널			초4패널			중1패널		
	전체	상대적 빈곤층	일반	전체	상대적 빈곤층	일반	전체	상대적 빈곤층	일반
1차 조사	-	-	-	-	-	-	-	-	-
2차 조사	16.17	15.50	15.19	1.65	-2.44	-1.12	-0.76	-8.49	-3.80
3차 조사	5.87	9.92	4.34	1.72	6.50	0.78	2.87	-7.52	3.53
4차 조사	-0.59	-10.71	-0.90	16.48	30.70	15.06	17.72	33.98	15.63
5차 조사	7.51	-0.16	7.75	4.62	1.67	5.01	5.61	-29.23	6.84
6차 조사	4.73	8.18	5.72	7.66	15.30	6.60	12.55	206.11	8.03
7차 조사	12.30	25.28	10.71	11.27	22.34	11.25	-	-	-

4. 패널별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지출비율

다음 표 10에는 표 8로부터 산출한 패널별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제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상대적 빈곤층가구는 대체로 일반가구의 60% 가량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일반가구 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중1패널의 제6차 조사시기(107.22%)였다.

모든 패널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일반가구 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높아졌는데 고학년 시기가 포함된 중1패널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5차 조사시기에는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하여 아주 낮고,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6차 조사시기에는 오히려 상대적 빈곤층가구

의 지출이 일반가구보다도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표 9와 마찬가지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대적 빈곤층이 교육투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재원을 집중해서 자녀 교육에 지출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 1에는 표 10의 결과가 그래프로 표현되었다.

표 10

패널별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지출비율

(단위: %)

	초1패널	초4패널	중1패널
1차 조사	62.75	54.87	58.01
2차 조사	62.92	54.13	55.19
3차 조사	66.28	57.21	49.30
4차 조사	59.72	64.99	57.13
5차 조사	55.33	62.92	37.84
6차 조사	56.62	68.05	107.22
7차 조사	64.06	74.84	-
평균	61.10	62.43	6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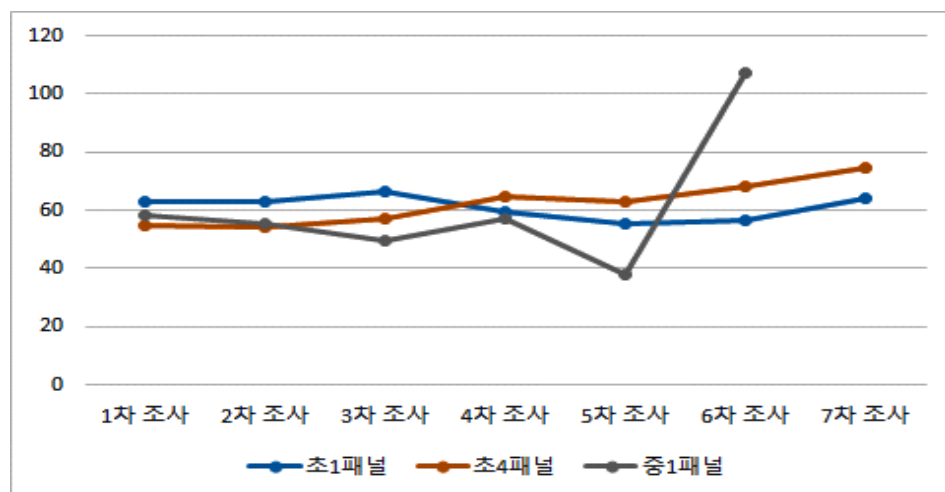


그림 1. 패널별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지출비율

5. 패널별 소득집단별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

다음 표 11에는 표 7과 표 8로부터 산출한 패널별 소득집단별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제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초1패널은 대략 7%-9%, 초4패널은 8%-10%, 중1패널은 9-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앞의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8에서는 상대적 빈곤층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낮은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표에 의하면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의 비율은 상대적 빈곤층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또한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소득대비 높은 사교육비 지출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체로 커져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상대적 빈곤층가구는 일반가구보다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7% 정도, 중학생 자녀가 있는 상대적 빈곤층가구는 11% 정도 높았으나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있는 상대적 빈곤층가구는 일반가구보다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30% 가까이 높았다. 다음 그림 2부터 그림 4에는 표 11의 결과가 패널별로 별도의 그래프로 제시되었다.

표 11

패널별 소득집단별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

(단위: %)

	초1패널			초4패널			중1패널		
	전체	상대적 빈곤층	일반	전체	상대적 빈곤층	일반	전체	상대적 빈곤층	일반
1차 조사	6.96	12.81	6.61	8.14	13.48	7.73	9.42	17.95	8.60
2차 조사	7.58	14.32	7.24	7.79	12.95	7.51	8.88	15.35	8.44
3차 조사	7.56	14.75	7.27	7.76	14.07	7.48	8.79	14.16	8.43
4차 조사	7.34	13.26	7.09	8.86	17.73	8.44	10.31	18.33	9.66
5차 조사	7.79	13.14	7.55	9.36	18.12	8.95	10.87	13.19	10.35
6차 조사	7.85	12.23	7.63	9.73	21.20	9.29	11.98	40.55	11.03
7차 조사	8.51	15.34	8.23	10.50	21.84	9.8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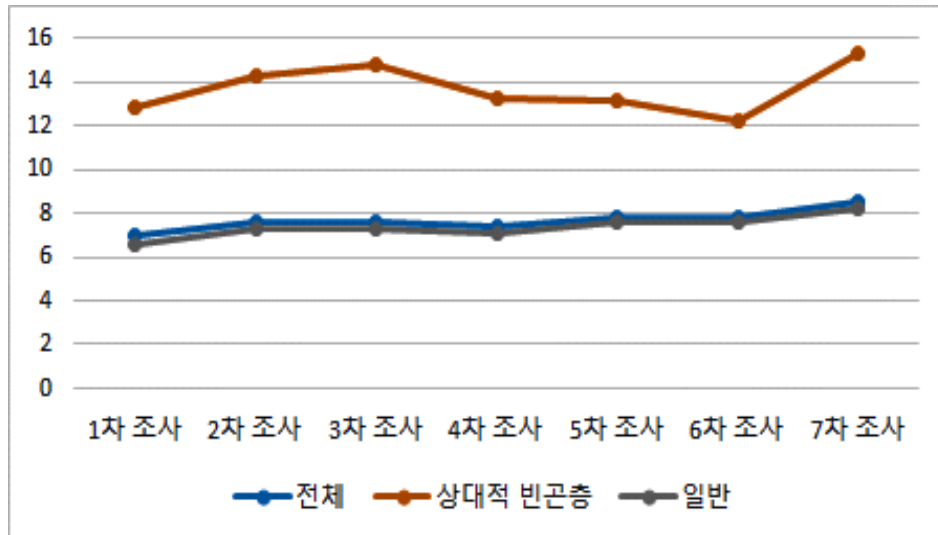


그림 2. 초1패널 소득집단별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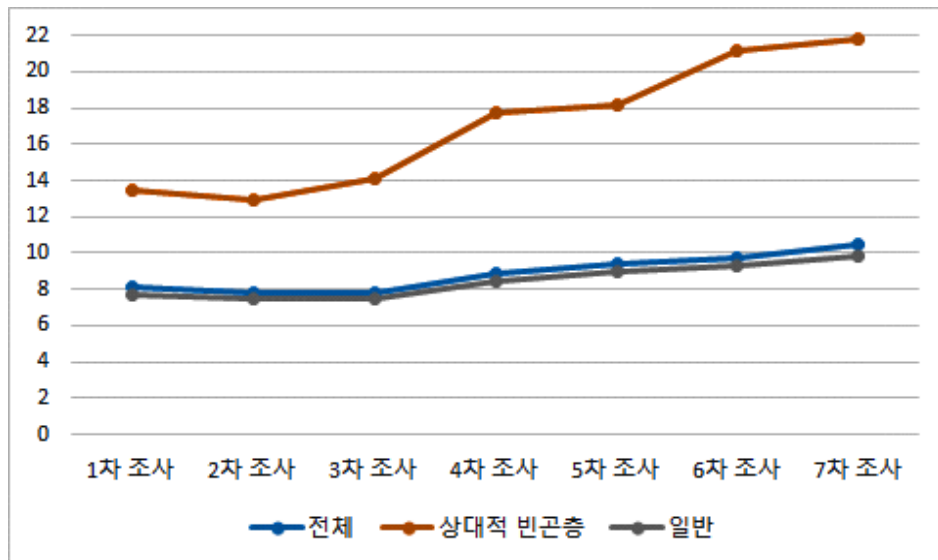


그림 3. 초4패널 소득집단별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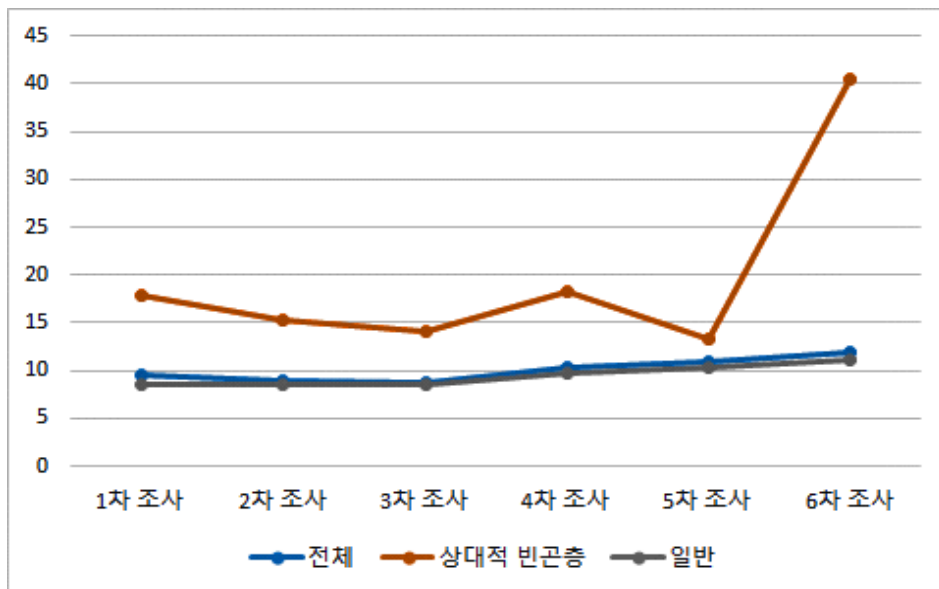


그림 4. 중1패널 소득집단별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

다음 표 12에는 표 11로부터 산출한 패널별 소득집단별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의 증감경향이 제시되었다. 이 표의 결과는 표 10의 패널별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지출비율에 나타난 경향과 거의 동일하였다.

이 표에 의하면 초1패널 일반가구에서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전년보다 가장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2차 조사시기(초등학교 2학년)에는 상대적 빈곤층가구가 일반가구보다 크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시기인 4차 조사시기(초등학교 4학년)에는 상대적 빈곤층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더욱 크게 감소하였다. 또 초4패널과 중1패널의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4차 조사시기(각각 중1과 고1)에는 상대적 빈곤층 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중1패널의 6차 조사시기에는 상대적 빈곤층 가구의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일반가구보다 극단적으로 높게 상승하였다. 이 결과 역시 표 10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부담과 이에 따른 필수시기 집중지출 전략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표 12

조사시기별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 증감

(단위: %)

	초1패널			초4패널			중1패널		
	전체	상대적 빈곤층	일반	전체	상대적 빈곤층	일반	전체	상대적 빈곤층	일반
1차 조사	-	-	-	-	-	-	-	-	-
2차 조사	8.91	11.79	9.53	-4.30	-3.93	-2.85	-5.73	-14.48	-1.86
3차 조사	-0.26	3.00	0.41	-0.39	8.65	-0.40	-1.01	-7.75	-0.12
4차 조사	-2.91	-10.10	-2.48	14.18	26.01	12.83	17.29	29.45	14.59
5차 조사	6.13	-0.90	6.49	5.64	2.20	6.04	5.43	-28.04	7.14
6차 조사	0.77	-6.93	1.06	3.95	17.00	3.80	10.21	207.43	6.57
7차 조사	8.41	25.43	7.86	7.91	3.02	5.92		-	-

V. 요약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양상과 변화추이가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초1, 초4, 중1패널 모두 일반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1.5배 정도였으며, 일반가구와 상대적 빈곤층가구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대체로 커졌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첫 해와 고등학교 3학년에 서 전년대비 사교육비의 증가 정도가 가장 컸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이 소득이 증가하면 지출이 증가하는 정상재(normal good)임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가구의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이성림(2005), 백학영과 안서연(2012)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고,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체로 가구소득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류정순과 이순형(1998), 백학영과 안서연(2012)의 연구결과와도 부합하였다.

둘째,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모든 패널과 모든 조사 시기에서 상대적 빈곤층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높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금액 규모가 컸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상대적 빈곤층의 경우 소득대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가구보다 높았다.

이는 김일희(1980), 최승애(1985)와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에서 소비나 소득에 대한 사교육비의 비율이 하위계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류정순과 이희자(1995)에서는 80년에는 소득에 대한 비율이 상위층이 더 높았으나 83년에는 전 소득계층에서 비율이 비슷해졌으며, 84년부터 상위층과 하위층의 비율이 역전되었고, 과외완화조치가 있었던 89년부터는 하위계층일수록 소득에 대한 사교육비의 비율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사교육에 지출하는 절대금액은 적지만 사교육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커지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독일의 2012년도 사회경제 패널(the Socio-Economic Panel, SOEP)과 가구데이터(Families in Deutschland, FiD)를 활용하여 소득집단에 따른 교육비 지출양상을 분석한 Schröder, Spiess and Storck(2015)의 연구에서도 이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득분위

가 증가할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하나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은 저소득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röder et al.(2015)는 교육비를 6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교육과 유사한 정규수업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과 개인학습(private tuition)에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나 소득대비 지출비중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커졌다.

셋째,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상대적 빈곤층의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중은 중학교 1학년(초1패널 15.34%, 초4패널 17.73%)과 고등학교 1학년(초4패널 21.84%, 중1패널 18.33%)에서 급격히 상승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40.55%)에서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 빈곤층가구에서는 일반가구보다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높아지는 시기에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중의 증가가 더 컸다. 이는 상대적 빈곤층가구에서는 교육투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사교육비 지출이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부전형, 논술, 면접과 같이 다양한 입시전형이 등장하면서 공교육만으로는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짐에 따라 입시준비관련 사교육도 많아지고 있다(어영기, 엄문영, 2015; 중앙일보, 2016.6.15).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할수록 한국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확률이 늘어나게 되면서 빈곤층에서도 무리한 교육투자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수 년 동안 학생일인당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였으며,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정책이 사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유경준과 김대일(2003) 등에서는 사교육비를 교육투자로 이해하고 이를 교육기회 격차로 해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학생일인당 사교육비의 감소만이 아니라 계층간 교육투자의 차이 축소 역시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낮은 교육비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과후학교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EBS를 통한 학습은 전국 총사교육비 규모 축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교육기회 격차해소라는 정책목표에는 잘 부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학년변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를 일반소득계층과 비교하였는데, 자료분석 과정에서 상대적 빈곤층의 개념을 사용하여 저소득층을 정의하고, 동일집단의 사교육비 지출양상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자녀의 학년변화에 따른 지출

양상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이 연구는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양상을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사교육비 지출부담으로 인하여 자녀의 학년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사교육비를 집중지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과 사교육비 지출이 불가피한 시점에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과거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정책은 절대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정부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기조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교육과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계획(교육부 보도자료, 2018.3.16)임을 밝히며 점차 교육복지정책의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으로는 취약계층 밀집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사업인 교육복지우선사업과 취약계층의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인 드림스타트가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공사업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사업이 있다. 이밖에 대학생 멘토링사업, 농산어촌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등의 지원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상대적 빈곤층가구에서 특정시기에 소득대비 매우 높은 사교육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들 여러 지원사업 중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정책의 선정이나 새로운 학년별 맞춤형 사업의 구안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구인회, 김정은 (2015).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42(3), 27-49. doi:10.15855/swp.2015.42.3.27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미숙, 강영혜, 박소영, 황여정, 이희숙 (2006). **입시산업의 규모 및 추이분석: 대입 정책과 사교육의 관계분석을 위한 기초연구**(RR2006-02-0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민희 (2017). 교육격차 개선방안: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 미디어 논문지**, 7(11), 377-385. doi:10.14257/ajmahs.2017.11.65
- 김수현, 이현주, 손병돈 (2009). **한국의 가난**. 한울.
- 김영철 (1997). 과외와 사교육비. **교육재정연구**, 6(3), 1-36.
- 김영철, 양승실, 김영화, 이주호 (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 과외과외를 중심으로** (CR2001-1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윤태, 서재욱 (2013). **빈곤-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울.
- 김일희 (1980). **중등학교의 사교육비와 선정된 환경변인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동아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준엽 (2017). 자율형사립고 진학포부에 따른 사교육격차: 고교다양화 정책 전후의 비교와 학년에 따른 격차 추이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6(4), 119-138.
- 김태완, 오미애, 박형준, 이주미, 신재동, 정희선 외 (2017).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 분석 보고서**(연구보고서 2017-33).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진, 박균달 (2008). 고교평준화 정책 적용 여부가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실증 분석. **교육행정학 연구**, 26(3), 251-275.
- 김현진, 박균달 (2011). 일반고와 외국어고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구조. **교육행정학연구**, 29(1), 131-151.
- 김혜자 (2013). 한국의 교육비 지출 양극화: 1990-2012. **마르크스주의연구**, 10(4), 45-66. doi:10.26587/marx.10.4.201311.002
- 김화경 (2017). 경향점수를 이용한 학교급별 사교육 요인 분석: 수학 사교육을 중심으로. **학습지중심교과교육연구**, 17(7), 49-66. doi:10.22251/jlcci.2017.17.7.49
- 김환표 (2013). **트렌드 지식사전**. 인물과사상사.

- 김홍주, 한유경, 김현철 (1998).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RR98-2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희삼 (2009).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의 분석. **한국노동경제논집**, 32(3), 27-59
- 도승이 (2007). **사교육의 개념 및 분류체계 연구**(기본과제2007-5).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 류정순, 이순형 (1998).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의 시계열 분석. **한국사회정책**, 5(10), 223-258.
- 류정순, 이희자 (1995). 도시근로자 가계의 계층별 교육비 비교: 1979년에서 1993년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학회지**, 4(1), 63-74.
- 박보영 (2010). 신빈곤을 통해 본 양극화시대의 빈곤문제. **노동연구**, 19, 5-45.
- 박성호, 문성빈, 황정원, 김성식, 황지원 (2015). **2014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 분석 연구**(수탁연구과제 CR2015-17). 한국교육개발원.
- 박현정, 이준호 (2009). 중학생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0(3), 215-241.
- 백일우, 이병식 (2015). **세계의 사교육 동향과 국제비교**. 학지사.
- 백학영, 안서연 (2012).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한국사회정책**, 19(3), 9-47. doi:10.17000/kspr.19.3.201209.9
- 양정선, 김순미 (2003).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연구: 사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221-232.
- 양정호 (2006).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 추세에 관한 연구-한국노동패널조사의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를 이용한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199 -219.
- 어영기, 엄문영 (2015). 사교육 진화의 양상과 원인을 통해 본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 **교육종합연구**, 13(4), 157-183.
- 여우진, 전지현 (2017). **빈곤통계연보**(정책자료 2017-01).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석진 (2011).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재정학회 연구용역보고서.
- 유경준, 김대일 (2003).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윤정일 (1997). 사교육비의 개념, 증가원인 및 대책. **소비자문제연구**, 19, 1-28.
- 윤철경 (1990). 사교육비와 교육의 불평등. **한국교육연구소 심포지움 자료집** 2, 77-100.
- 이성립 (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40(9), 143-159.
- 이성립 (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이성립 (2006). 도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전략. **소비자학연구**, 17(2), 115-132.
- 이철원, 이수정, 한선영, 문지영 (2018). **2017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연구**(기본과제 2017-1). 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
- 이현주, 정은희, 이병희, 주영선 (201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 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연구보고서 2012-32).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은희, 이주미 (2015). **빈곤통계연보**(연구보고서 2015-34).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영재 (2013). 사교육비 양극화 진단과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3년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69-96.
- 채창균, 이재경 (2009). 특목고와 사교육. **제4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상근, 김현진, 유균상, 류방란, 현주, 윤종혁 외 (2004). **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정책연구과제 2003-지정-19).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최승애 (1985). **도시가정의 자녀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철, 이주석 (2017). 국내 가구별 사교육비 지출 분포 추정연구. **재정정책논집**, 19(3), 79-112.
- 통계청(2008).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서울: 통계청.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경감방안**.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New York: Greenwood Publishing Group.
- Sandel, M. J. (2012). *What money can't buy?*. Farrar Straus & Giroux.
- Schröder, C., Spieß, C. K., & Storck, J. (2015). Private spending on children's education: low-income families pay relatively more. *DIW BERLIN*. Retrieved April 30, 2018, from https://www.diw.de/documents/publikationen/73/diw_01.c.497272.de/diw_econ_bull_2015-08-3.pdf.
- 교육부 보도자료 (2018.3.16).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e.go.kr/sn3hcv/doc.html?fn=0c52a331eae3c1a85f96f543c20c3386&rs=/upload/synap/201809/에서> 2018년 4월 15일 인출.

조선일보 (2016.7.12). “서울대 지역격차 해소? 강남 3구 여전히 강세.”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2/2016071200375.html에서 2018년 4월 30일 인출.

중앙일보 (2016.6.15). “학생 60% 학부모 75% 학종, 학교 생활만 충실히 해선 준비 못해...교사 77% 공교육 정상화 도움”. <https://news.joins.com/article/print/20171591>에서 2018년 11월 5일 인출.

ABSTRACT

An analysis of changes i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amongst the relatively poor*

Kim Hyunchul* · Hwang Sujin** · Park Hyerang***

The education gap grow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because of differences in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and expendi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situation and track the changes in patterns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between relatively poor households and general households using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data with three panels collected from 2010 to 2016. Along with the relative poverty line,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on private tutoring of all panels generally increased by time series.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of relatively poor households was $\frac{2}{3}$ of the overall average, but the relatively poor spent a larger proportion of their income on private education than the general group during the entire survey perio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gap among these income classes, effective educational policies to reduce the burden on private tutoring expenses for the relatively poor are clearly needed.

Key Words: the relatively poor,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KCYPs

투고일: 2018. 9. 6, 심사일: 2018. 11. 30, 심사완료일: 2018. 12. 14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8S1A5B8A02081889)

* Sungkyunkwan University, First author

** Sungkyunkwan University

*** Sungkyunkwa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phr39@hanmail.net